

감사의 글

2010년 올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활동을 시작한지 1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매 연초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지난 2009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아쉬움이 매우 큰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5월의 2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우리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새해로 접어들지 벌써 3월이 됐지만 사정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난 10여년간 주력하여 추진해 온 농업·축산·보건의료 및 산림 녹화 분야에서의 중장기적인 개발지원사업과 인력개발사업이 우리 정부의 여러 제한조치에 막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08년에는 총 49회에 걸쳐 연인원 618명이 북한의 지원현장을 방문하였으나 2009년에는 방북횟수가 25회에 불과했고 인원도 84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치도 재중동포의 지원현장 방문을 포함한 것으로, 우리 정부의 방북 승인을 받고 평양이나 개성을 방문한 횟수는 11회에 인원은 70명에 그쳤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단체가 무기력하게 지난 한해를 보낸 것만은 아닙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창립 당시의 정신을 되살려 “옥수수 1만톤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11월까지 1만1천톤의 옥수수를 북한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평안북도과 함경북도 등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있는 유치원, 탁아소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의 고려인 지원사업도 그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은 성과보다 아쉬움이 훨씬 더 큰 한 해였습니다. 이번 ‘2009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작하면서, 지난 한해 외부의 조건을 핑계로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회원과 후원자들과의 소통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았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2009년도 사업보고서’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지난 한 해동안의 솔직한 기록이자 애정어린 비판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나눔

희망
리망

2009년 10월 개성 민속려관, 담쟁이 넝쿨이 벽을 오르고 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벽을 오른다

- 도종환의 '담쟁이' 중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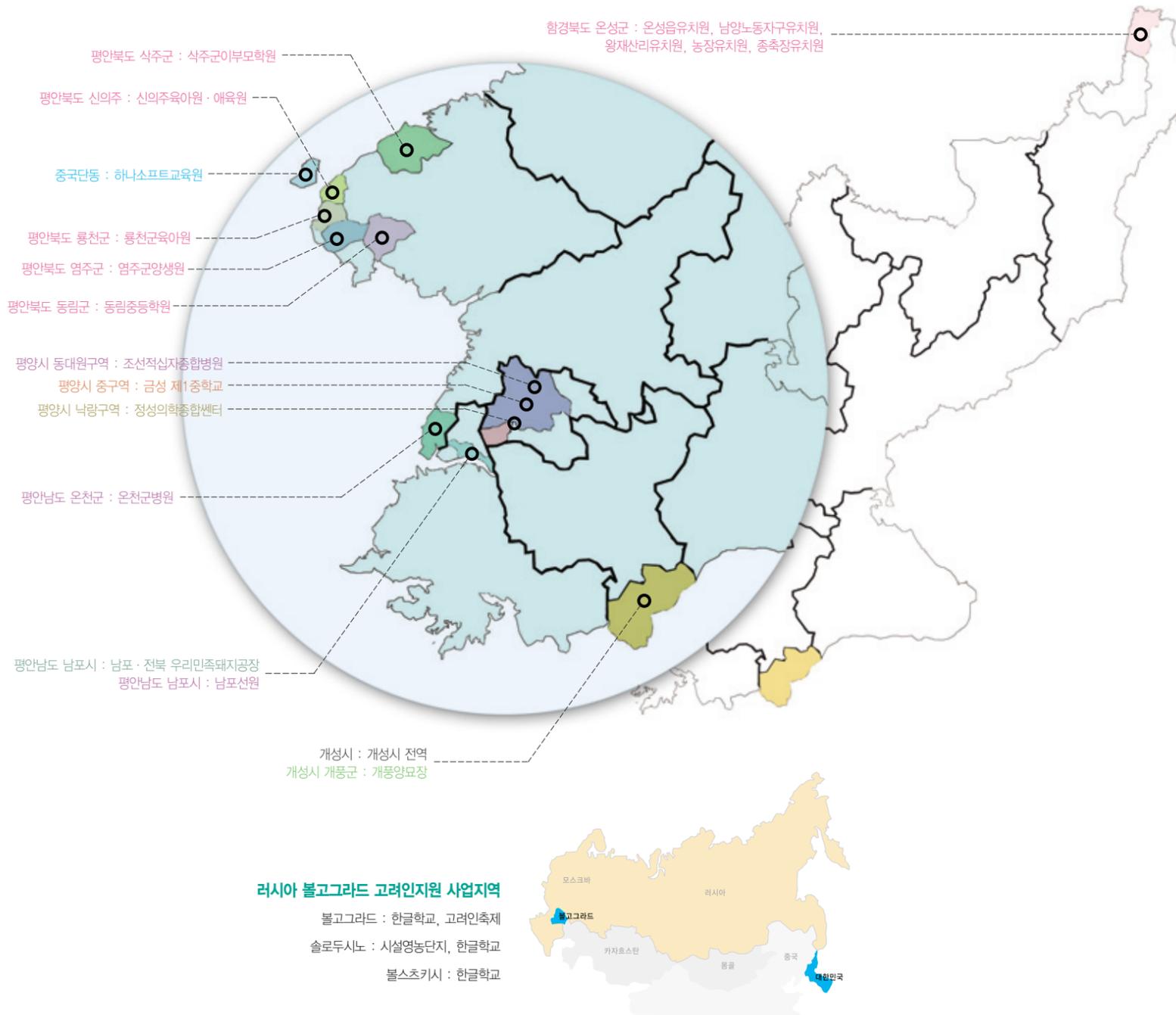
인도적 지원 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 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합 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사업지역

- 농촌현대화 사업 ● 축산협력 사업 ● 교육지원 사업 ● 말라리아 방역사업 ● 제약공장 지원사업 ● 병원현대화사업 ● 어린이급식사업 ● IT교육사업



방북자 및 물자지원현황

2007년까지는 한국 국적의 북한 방문자만 집계, 2008년부터는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재중동포들이 신의주와 룡천, 함북 온성 등에 방문한 것도 통계에 포함시킴. 2009년의 경우 한국 국적자의 북한 방문 횟수는 11회에 인원은 70명임.

북한 방문 현황

연 도	방문 횟수(회)	연인원(명)	방문 지역별 (횟수/연인원)					
			평 양	남 포	신의주	개 성	금강산	기 타
1998	2	4	1/2		1/2			
1999	8	29	2/13	4/10	2/6			
2000	19	79	8/48	8/20	3/11			
2001	20	106	14/85	5/17	1/4			
2002	24	212	20/203	3/7				1/2(자강도 만포)
2003	21	363	19/356	2/7				
2004	26	168	18/136	4/15	1/7	1/3	2/7	
2005	64	972	37/811	6/13	4/18	17/130		
2006	72	704	60/647		2/2	8/48	2/7	
2007	65	2,962	38/471		3/3	24/2,488		
2008	49	618	13/217	2/12	4/4	22/377	1/1	7/7(함북 온성군)
2009	25	84	9/59		4/4	2/11		10/10(함북 온성군)
합 계	393	6,301	239/3,048	34/101	26/71	73/3,054	3/8	18/19

물자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일반구호	보건의료	농업/축산	급식사업(취약계층)	계
1996	171,500	-	-	-	171,500
1997	4,612,180	-	492,000	-	5,104,180
1998	330,000	-	420,000	-	750,000
1999	2,290,000	376,500	135,000	-	2,801,500
2000	6,382,900	202,190	1,871,270	-	8,456,360
2001	5,344,390	556,000	2,823,230	220,000	8,943,620
2002	2,018,750	1,090,530	3,928,850	165,710	7,293,840
2003	2,891,390	1,952,370	1,209,710	1,302,180	7,355,650
2004	1,007,250	4,726,480	2,074,080	78,125	7,885,935
2005	1,640,380	1,397,730	3,390,790	10,476	6,439,376
2006	828,920	1,499,140	5,264,130	5,180	7,597,370
2007	3,076,948	1,090,922	3,068,778	44,096	7,280,744
2008	4,181,110	3,875,382	2,427,461	67,044	10,550,997
2009	4,163,576	229,980	3,150,606	114,590	7,658,752
합 계	39,029,294	16,997,224	30,255,905	2,007,401	88,289,824

2009 활동일지



0105 평화나눔센터 제5차 라운드테이블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제 : 2009년 북한 공동선언사실의 분석과 정세 전망

발표1 : 대내적 측면에서 본 2009년 공동선언사실(정영철 이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발표2 : 대외적 측면에서 본 2009년 공동선언사실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패널 : 홍용표(한양대 교수), 서보혁(이대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석자 : 언론, 남북관계 전문가 및 단체 관계자 등 약 100여명 참석



0107 러시아 블고그라드 한글학교 개강
0111-0218 고려인 시설농업교육 연수단 한국 입국(총10명/39일간 체류)
0115 제38회 정책포럼
 주제 : 2009년 북한 주민의 쌀도 상황 - 식량 부족의 현상과 본질
 발표자 : 권태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116 영유아지원용 급성영양치료제(Plumpy Nut) 30톤 지원(2억원 상당)
 남포시 '우리민족 돼지공장' 사료 60톤 지원(4천1백만 상당)
0120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정기총회(공동모금회 강당)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부회장단체로 유입됨
0121-0124 경기도 및 농업대표단 방북(9명)
0123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에 540만원 상당의 급식자재와 겨울의복, 담요 등 지원(중국 도문-온성군)



0131-0203 남포·대안 영양개선사업 대표단 방북(5개 주관단체 및 전문가 9명)



0206 태양광발전소 시범사업에 대한 의향서 교환(부산경남분부와 북측 민화협)
0209 2009년 내부 정책집담회
 장소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의실(참석자 : 총 33명)
 기초발표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미래 비전(최완규 공동대표)
 - 09년 주요사업방향과 조직쇄신 방안(강영식 사무총장)
 라운드테이블 토론 및 종합정리
0211 홈페이지(www.ksm.or.kr) 개편

0216 평양 돼지공장 기초건설용 건설물자 지원(시멘트 444톤, 철근 35톤, 와이어메쉬 등9천5백만원 상당)
0218-0221 경기도 및 농업대표단 방북(12명)
0219故 김수환 추기경(교문) 조문
0221 러시아 블스키 한국어·한국문화의 날 축제 참가
0224 2009년도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 합의를 교환(민족화해협의회)



2월

0309 평양 돼지공장 제1차 건설 물자 지원(2억6천만원 상당)
 평양 사동구역 시설채소 연동 온실(3,000평) 및 농기자재 지원(5억원 상당)
 평양 대성구역 채소 단동 온실(900평) 지원(1억원 상당)
0314 남포산원 외래병동 신축 전기 설비 지원(MR, 배전함 등 9,000만원 상당)
 조선적십자종합병원 구강병동 수술장 강화도어 지원(260만원 상당)
0316 평양 돼지공장 8톤 트럭 2대 지원(8천4백만원/단동-신익주)
0316 2009년도 북한 IT인력개발 교육에 관한 합의서 체결 (삼천리총회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마음남북장학재단)
0318 북한 IT인력개발 교육에 관한 '한마음남북장학재단'과의 협약체결
0321-0325 정성의학종합센터 품질관리 기술진 방북(2명)



0321-0324 경기도 협력사업 대표단 및 기술진 방북(10명)
0325-0328 남포산원 건설 기술진 방북(9명)
0327 개성 개풍양묘장 물재육묘 온실 300평, 묘목종자, 비료, 농약 등 지원(2억3천만원 상당/개성육묘)
0327 평양 돼지공장 2차 건설물자 지원(1억7천만원 상당)
0328-0404 평양 덕동구역 채소온실 기술진 방북(6명)
0328 '2008년도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발행
0328 통일연구원과 2009년도 연구용역사업 계약 체결

3월

4월

0401 러시아 블고그라드 동포 유학생(1명) 장학생 국내입국 지원
0413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 왕재산리유치원(신규), 농장유치원(신규), 종축장유치원(신규)의 2,300여명에게 1,650만원 상당의 급식자재와 생필품 지원
0413 평안북도 룡천육아원, 신의주육아원, 신의주애육원, 동림중등학교원, 식주군청수이부모학원, 연추군양생원에 1,600만원상당 콩기름, 학습장 등 지원



0420 평양 덕동협동농장 농자재(비료, 농약 등) 1억2천만원 상당 지원 (인천-남포)
0422 중국사무소 <연변조선족서로돕기연합회> 개소식 개최
0422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 왕재산리유치원, 농장광유치원, 종축장유치원의 2,300여명에게 800만원 상당의 급식자재와 생필품 지원
0424-0425 재외동포활동가 워크숍 공동주최
0427 제39회 정책포럼 개최
 주제 : '북한 로켓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심층 대해부'
 발표자 :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0516-0523 돼지공장 및 온실 기술진 방북(10명)
0520-052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 및 보건의료 기술진 방북(10명)
0527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 왕재산리유치원, 온성농장유치원, 종축장유치원의 2,300여명에게 770만원 상당의 급식자재(라면,과자,사탕,콩기름) 지원(중국 도문-온성)



0528 러시아 블고그라드 타민족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타민족대표 모임
 참석자 : 고려인협회,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등 타민족대표 30여명
0529 경기도가 지원하는 개성지역 말라리아 방역약품 지원(개성육로)

5월

0603 제62차 공동대표회의(팔레스호텔)
0612 러시아 블고그라드 크라스나르메스키 라이온 다민족 축제 참가
0618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부산경남본부 후원의 밤
 장소 :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
 참석자 : 정여 상임대표(범여사 주지) 등 220여명
0623 창립 13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개최
 장소 : 서강대학교 곤자가컨벤션
0625 <북민협> 기자간담회 개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내용 : 남북관계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자 간담회



0626 경기도-개성 말라리아 공동방역 2차 물품 지원(개성육로)
 물자 : 방역약품(살충제 등 4종), 진단기구 등 1억2천만원어치 상당 물자



0630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 왕재산리유치원, 온성농장유치원, 종축장유치원의 2,300여명에게 780만원 상당의 급식자재(라면,과자,사탕,콩기름 및 학습장) 지원 (중국 도문-온성)

2009 활동일지

“동행과 리빙을 위한 발걸음”

0702 평안남도 남포산원 건설자재 지원 (인천항→남포항)

0715 부산대학교 제8기 해외봉사단 34명, 러시아 볼고그라드 출국



7월

8월

0808 분유 5,375kg(약 1,700만원 상당) 지원 (인천→남포)
0814-0820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축제 참가단 현지 방문
0815 제8회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 김치축제 개최



장소 : 센트랄리 콘체르니잘 (볼고그라드 중앙문화회관)
주최 : 볼고그라드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0824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10년 백서'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발표 : 최용환 박사(경기개발연구원)
참여자단체 :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충북

0825 평안북도 룡천육아원, 동림중등학교, 동림양생원에 콩기름 1,000kg (2백만원상당) 지원 (중국 단둥→신의주)

0826-0829 보건의료 및 부산경남 대표단 방북 (7명)



0830 중국산 옥수수 1차분 4,200톤 지원(대련항→남포항) 수량 : 25kg 들이 168,000포대



9월

0901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 왕재산리유치원, 농장유치원, 종축장유치원의 2,300여명에게 780만원 상당의 급식자재(밀가루,과자,사탕,콩기름) 지원 (중국 도문→온성)

0902-0906 사할린 동포축제 개최
주최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지구촌동포연대(KN)
장소 : 유즈노사할린스크, 포자르스쿄에, 고르노자부드스크



0904 제40회 정책포럼 개최
주제 :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현황과 향후전망
발표자 : 조봉현(기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0911 '시민사회 통일론의 정립'을 위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발표 1 : 한국현대사실천철학에서의 통일논의 (신우현 청주 교대 교수)
발표 2 : 인문학적·통일이론의 모색(장은주 영산대 교수)
발표 3 : 새로운 통일국가의 이념에 대한 모색(김상봉 전남대 교수)

0911 개성지역 말라리아 3차 방역물자 지원 (개성육로)
0914 부산경남본부 사무실 개소식
0918 개성 개풍 양묘장 및 말라리아 방역 기술진 개성방문 (3명)

0918 '2009 아시아 오픈포럼 참가' (고려대학교)
주제 : 아시아 한인교포사회의 재조명
발표 : <고려인 동포의 재이주에 대한 개괄> (이봉철 부장)



0925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 왕재산리유치원, 농장유치원, 종축장유치원의 2,300여명에게 1,500만원 상당의 급식자재(밀가루,과자,사탕,콩기름,담요) 지원 (중국 도문→온성)

0928 세계 한인의 날 참가 (쉐리톤 그랜드 워커힐)
주제 :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발전방안
발표 :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의 구축과 발전방향 - 재외동포와 NGO의 교류활동을 중심으로> (강영식 사무총장)

1008 제41회 정책포럼
주제 : '남북간 인도주의 현황과 민관협력'
발표자 : 고경빈 前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1021 대북 지원 옥수수 2차분(5,800톤) 첫 지원분 수송 (중국 단둥→신의주)
인도요원 중국 단둥 방문 (10월 20일~22일)
1028-1029 보건의료 기술진 개성방문 (7명)
1029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 왕재산리유치원, 농장유치원, 종축장유치원의 2,300여명에게 750만원 상당의 급식자재(밀가루,과자,사탕,내의,콩기름) 지원 (중국 도문→온성)



10월

11월



1105-1107 '2009년 한국평화활동가대회' 공동 주최
장소 : 강원도 인제군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유마을
주제 : "평화운동, 통(통)하였으나, 통(통)하였으나 : 국가폭력과 비폭력대화"

1113 평안북도 룡천육아원, 동림중등학교, 동림양생원 등 6개소에 콩기름 및 생필품 등 330만원상당 물품지원 (중국 단둥→신의주)

1113-1114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발전과 연대를 위한 부산 국제심포지엄 참가
장소 : 부산 민주공원



1120-1122 제6회 재외동포NGO대회 참가
장소 : 경기도 가평 <꿈꾸는 마을> 연수원
1121 러시아 고려인문화협회 총회(모스크바 시내 문화회관)
참가자 : 각 지역 고려인문화협회 회장 (볼고그라드 참가자: 김표트르, 김안톤, 이봉철 부장)

1123-1124 러시아 라스토프나도누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연수
1124-1126 2009년 대북지원 국제회의 개최



주제 :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
장소 : - 개회식 및 세션 1 (프레스센터)
- 비공개회의(평화문 서머셋 플라자 호텔)
주최 : 우리민족 / 프리드리히헤버트재단 / 통일연구원 / 경기도
후원 : 통일부, 주한유럽연합대표부

1124 대북 지원 옥수수 2차분(5,800톤) 수송 완료 (단둥→신의주)

1127 함북 온성군 5개 영유아기관에 국수, 콩기름, 사탕, 솜뎀복 등 600만원 상당 물자지원 (중국 도문→온성군)

1130 대북 지원 옥수수 3차분(1,000톤) 수송 완료 (단둥→신의주→서포)

1204 러시아 볼고그라드 동포학생 장학금 전달식
장소 : 볼고그라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실
내용 : 대학생 5명에게 장학금 전달



1210 대북 농업·축산·산림녹화 지원단체 및 전문가 공동 기자회견
장소 : 달개비(구 세실레스토랑)
주요 참여단체 : 우리민족, 기아대책, 월드비전, 국제옥수수재단, 남북나눔운동, 겨례의 숲 등 20여개 단체



1218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 왕재산리유치원, 농장유치원, 종축장유치원의 2,300여명에게 700만원 상당의 급식자재(밀가루,과자,사탕,내의,콩기름,이불) 지원(중국 도문→온성)
1229 평안북도 룡천 및 신의주 6개 보육원(교아원)에 정기 급식 지원물품 300만원 상당 콩기름 및 생필품 지원(중국 단둥→신의주)



12월

우리민족사업소개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길, 그길에서 희망을 봅니다”



농업·축산협력사업

직접적인 먹을거리 지원보다는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전해 주고 있습니다. 3년간 북한의 협동농장에서 직접 농사를 같이 짓는다면 최근에는 북한의 농업·축산 생산구조 전환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북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사업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협력사업

지난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북한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전북, 경남, 경기도 등의 지자체와 남북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경기도와는 2004년부터 농업·축산과 산림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협력사업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상황 개선과 보건의료 자원 강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제약공장 건립과 병원현대화, 영유아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9년에는 정성의학종합센터 내에 동물실험실 설치와 적십자병원 현대화사업과 남포산원 외래병동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취약계층지원사업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의 취약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 곳에 있는 유아원과 탁아소,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 사업을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균형과 나아가 마음의 균형까지 맞추는 지원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긴급구호지원사업

2009년 여름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긴급구호 차원에서 옥수수 1만톤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 결과 8월부터 12월까지 1만1천톤의 옥수수를 북한에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IT교육협력사업

북한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우선 IT분야의 교육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9년 계획했던 시스코 네트워크 과정이 정부의 사업 유보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후 국제통상과 무역,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연구사업

전반적인 남북관계와 북한 개발지원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및 국제 인도주의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대북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특히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재외동포지원사업

머나먼 이역 땅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남부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문화와 민족의 정체성 상실과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민족 정체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지부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는 광주전남지역과 부산경남지역에 지부가 있습니다. 각 지부는 서울에 있는 본부 사무처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자체의 독자적인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에서는 헌 교과서 수집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부산경남에서는 햇빛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본부사업

미국 달라스와 워싱턴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해외 본부 조직이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만들어진 이들 조직들은 대북지원 사업을 펼치기 어려운 미국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대북지원사업과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축산협력사업

- 지자체협력사업
- 보건의료협력사업
- 취약계층지원사업
- 긴급구호지원사업
- IT교육협력사업
- 정책연구사업
- 재외동포지원사업
- 국내지부사업
- 해외본부사업

농업·축산협력사업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6년 창립 이후 북한의 농업·축산분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농업·축산 분야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대북 인도 지원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 분야에 대한 지원은 당초 먹거리를 제공하는 단순 지원방식으로 출발했지만 점차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개발지원의 방식으로 확대·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농업·축산 분야에 대한 지원은 그간 지원의 내용과 폭, 그리고 지원의 질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보다 세분화된 대상과 사업지역, 그리고 구체화된 목표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09년 한 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의 농업·축산 생산 구조 전환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 기술 향상 및 영농기반 강화, 농업전문가 양성, 그리고 북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사업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평안남도 남포시 대대리 협동농장 농자재 및 양돈장 지원 사업

2007년 10월 24일 준공한 남포시 대대리 협동농장 내 (남포·전북 우리민족 돼지공장)은 현재 평안남도 남포시 인근 주민과 탁아소, 유치원 등의 아이들에게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돼지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돈장에서 발생한 축분을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여 채소 등 농작물 재배에 사용함으로써 농업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한 해동안 평안남도 남포시 대대리 협동농장과 양돈장에 채소종자, 경운기, 비료 등의 농자재와 함께 60톤의 배합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물자의 지원이 지연되면서 양돈장 운영이 상당 부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양 대성구역 채소육묘단지 조성 및 채소 재배 지원 사업

북한 주민의 1인당 연간 채소 소비량은 FAO(국제식량농업기구)의 권장량인 73kg의 절반 정도인 45kg에 불과합니다. 이는 남한 주민의 채소소비량인 150kg의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채소에 함유돼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가 부족하면 영양불균형과 함께 면역력이 저하되는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평양 대성구역 채소육묘단지 조성 및 채소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채소육묘단지 조성을 위해 채소육묘장 1동(600평), 단동온실 10개동(1,500평)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우리 정부의 방북 및 물자 반출 제한으로 지원 물자에 대한 현지 모니터링 방문 이외에 남측 기술진에 의한 현지 채소 재배 기술 이전 등의 사업은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의 인도지원 제한 조치 철폐 촉구 기자회견 진행

2009년에는 특히 농업 및 축산 분야의 사업이 우리 정부의 물자 반출 및 방북 제한 조치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뿐만 아니라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의 농축산 지원 물자들이 2009년 4월부터 북에 전달되지 못한 채 인천항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과 축산분야의 대북 인도지원을 지속 전개하기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과 더불어 2009년 6월 25일과 12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민간단체 및 전문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 재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결국 정부의 반출 제한 조치로 묶여 있던 농업물자들이 9개월만인 2010년 1월이 돼서야 북에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도 민간차원의 인도지원이 남과 북의 신뢰와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려내고 한반도의 어떠한 정치적 긴장관계 속에서도 남과 북의 신뢰 회복과 화해와 협력을 위한 인도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9년 5월 평양 대성구역 온실단지를 방문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2009년 12월, 북민협 소속 단체 관계자들 및 전문가들의 대북지원 촉구 기자회견



남포시 대대리에 있는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조감도

지자체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남북협력사업의
 가교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협력사업의 가교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남북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왔으며 현재는 경기도와 농업, 보건, 산림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 돼지농장 농축산 협력사업 (순환형 농축산단지의 조성)

2009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평양시 사동구역 덕동리에서 순환형 농축산 단지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축산, 곡물농사, 채소농사, 축산분뇨를 이용한 에너지와 비료 생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축산분야에서는 상시적으로 500마리를 기를 수 있는 양돈장을 신축하고, 기존 양돈장 일부를 개보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곡물로는 벼와 옥수수농사를 계획하여 우선 100ha 규모의 벼농사 협력 사업을 위한 농기자재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10,000㎡(3,000평) 규모의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에너지와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설비를 지원함으로써 옥수수는 돼지의 사료가 되고 유기질 비료는 옥수수와 벼농사 그리고 채소농사의 비료로 사용하며, 축분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는 농장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지요.

2009년 2월부터 본격적인 물자전달과 기술진의 방북이 시작되어 사업이 진행되던중 4월초 북한의 로켓발사와 핵실험으로 사업추진에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정부는 지난해 4월 이후부터 농업관련 물자의 전

2009년 지자체 협력사업 지원 현황

방북	물자
6회, 54명(평양) 1회, 3명(개성)	벼농사 : 농약, 비료 등 채소온실 : 온실 6동(3,000평), 경운기 등 농기계, 종자, 농약, 비료 등 양돈장 : 신축양돈장 및 기존 양돈장 개보수 개성 개풍양묘장 : 농약, 비료, 종자, 묘목 말라리아 공동방제 : 살충제, 기피제, 말라리아 진단 키트



2009년 5월 덕동 돼지공장 돈사 신축현장

북측 관계자의 말 - 평양돼지공장 정달선 지배인

남측 손님(기술진)들이 먼 길 오기 전에 정해진 공정을 마치기 위해 밤을 깨며 일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주신 설계도면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남포시 대대리의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을 방문해서 남측의 건설 공법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북측) 자체적으로 도면을 만들어 건설을 진행했습니다.

개풍 양묘장 지원사업에 대한 남측 전문가 평가

김중진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학 교수)



개풍양묘장은 조성 후 이미 금년 2차년도 양묘를 통해 우량한 묘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의 양묘 결과를 통해 볼 때 앞으로 북한 최고의 양묘장으로 자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다른 지원 양묘장에 비해 양묘장에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구체성에 있다.

개풍양묘장 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이 바람직한 점은 그들 스스로 새로운 양묘기술 개발의 시도, 시험이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목격되지만 스스로 갖추어가는 기술개발 의지의 배양보다 더 중요한 남북 지원사업의 목표와 결과가 또 어디 있겠는가!



개풍양묘장 공동 파종 모습



2009년 1월,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전문가 평가회의



말라리아 방역물자 지원

달을 엄격하게 제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3월말 전달하기로 한 지원물자가 10개월동안 인천항에 묶여있다가 2010년 1월에 전달되고 평양 현지 양돈장과 비닐하우스는 짓다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현재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라 하더라도 농업물자의 지원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자체 관계자의 방북도 금지하고 있어 사업파행이 불가피 했습니다.

개성 개풍양묘장 지원사업(2년차를 맞이하는 개풍양묘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는 북녘의 붉은 산을 푸르게 가꾸기 위한 산림녹화 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조성 2년차를 맞이한 개풍양묘장은 묘목장 면적이 5.5ha에서 10.5ha로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씨뿌림하여 키운 묘목을 2년차에는 옮겨심기를 해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옮겨심기를 한 빈 묘목장에는 새로이 씨앗을 심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 양묘장도 300평을 추가로 신축하여 총600평 규모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묘목 생산 성과

2009년 봄에 생산한 묘목은 백합나무4만본, 물푸레나무8만본, 자작나무 8만본 등 총 30만본입니다. 매년 150만본 생산 목표의 첫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술협력 성과

2008년 11월에 남측 양묘전문가와 북측 양묘관리인들이 함께 심은 잣나무와 백합나무의 싹이 우기가 성공하였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에는 북측이 자체적으로 종자를 심었는데 양묘기술 부족과 포지선정 및 관리의 미숙으로 싹이 나지않고 불량 묘목이 많았습니다. 잣나무와 백합나무의 성공적인 양묘로 현지 관리인들의 자신감은 대단히 높아 졌습니다. 하지만 밤나무 묘목 접붙이기가 실패하였습니다. 전달과정에 접수가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통관이 미루어져서 생긴 문제입니다.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지난 2008년 이후 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사업에서 경기도내 말라리아 환자수가 50%이상 감소한 성과에 힘입어 09년에도 5월29일부터 3차례 걸쳐 유충구제약600kg, 살충제 3톤, 조기진단세트 1,000개, 가정용분무살충제 30,000개 등 3억4천여만원치의 물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북측의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우리정부가 대북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중에도 꾸준히 물자를 하였습니다. 이는 이사업이 남북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협력사업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하는 병원,
따뜻한 온기까지 전해주는 치료약...
여러분의 정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보건의료는 한 국가의 건강과 복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90년대 중반부터 지속된 경제난으로 보건의료 부문이 매우 취약해 졌습니다. 이에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7-8년간 크게 병원현대화사업과 제약분야 지원사업을 근간으로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평양의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펼쳐진 병원현대화사업은 병원의 주요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 주요 의료기기 지원, 병원 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약공장지원사업은 정성의약품종합센터를 중심으로 2005년에는 수액약품공장(링거액), 2006년에는 알약약품공장을 각각 준공하여 정성의약품생산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후에는 약품의 품질 개선 및 관리를 위해 종합품질관리실 설치(2008년 준공) 및 제약 기술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다양한 협력 단체들과 함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보청기 지원 및 안보건 사업, 남북한 의료 분과별 토론회 등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평양의학과학토론회’의 남측 준비위원회를 맡아 지난 2003년부터 4차례에 걸쳐 남북간의 의료 전문가 기술 교류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남쪽의 물자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속에서 정성의약품종합센터가 자체로 짓고 있는 동물실험실 건물

2009년도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당초 2009년 북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은 크게 1) 정성의약품종합센터의 동물실험실 설치, 2) 적십자병원 임상검사소 개보수 및 구강과 보철실/교정실 설치, 3) 정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포산원 외래병동 건립 등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북간의 경색 국면과 방북 및 물자 반출 등의 제한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적십자병원 현대화사업

전국의 불치 난치병 환자들이 찾아오는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은 1천개의 병상과 2천명의 의료진, 하루 2천명의 외래환자가 찾는 북한 최대 규모의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을 단 기간 내에 복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평양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의 난치병 환자들이 찾는 의료시설이기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004년부터 적십자병원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에는 종합수술장을, 2006년에는 신경외과/호흡기병동부 및 회복치료과, 2007년에는 약무병동과 구강수술장, 그리고 2008년에는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수술장을 각각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09년에 진행하고자 했던 임상검사소 개보수와 보철실/교정실 설치, 남북간 관계 경색과 물자 반출 제한 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정성의약품종합센터 지원사업

약품의 공정과 완제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 검사는 의약품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까지 진행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제약공장 지원사업이 제약생산시설 확충 및 관련 기술 전수에 중점을 두었다면, 2007년부터는 생산 약품의 품질 개선과 관리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2008년 9월 종합품질관리실 준공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2009년 상반기에는 이미 설치된 종합품질관리실 기기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어 하반기에는 개성에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리 및 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2009년에는 의약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동물실험실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동물실험실은 완제의약품을 동물에 직접 투약해 보고 문제가 없는지 실험하는 시설로 특히 주사제 품질관리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상반기에는 남북의 제약 전문가, 엔지니어들이 동물실험실의 배치와 크기, 주요 투입 설비 등에 대해 점검하여 최종 설계도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북한에 대한 지원 물자들이 반출되지 못하면서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을 빚었지만, 정성의약품종합센터는 그 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도에 따라 동물실험실 건물을 자체적으로 신축하였습니다. 비록 당초 계획대로 동물실험실을 2009년에 준공하지는 못했지만, 정성의약품종합센터의 자구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남포산원 외래병동 신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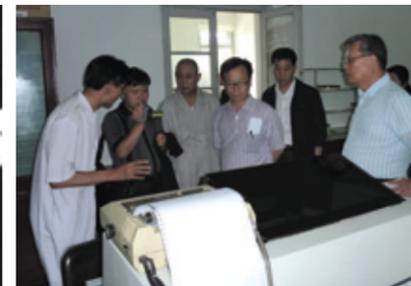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008년부터 남포산원 외래병동 신축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포산원은 남포시의 산모들 뿐만 아니라 룡강군을 비롯, 주변의 군 지역 산모들도 이용하는 병원으로 사실상 3차급에 해당하는 중요한 병원입니다. 이러한 남포산원에 외래병동을 신축하는 등 전반적인 병원현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공모한 영유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도 2009년에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3개년 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정부의 추가적인 기금 의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 물자 반출이 제한되면서 3층의 골조 공사만 마무리된 채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추진하는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2009년 한 해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동안 마무리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2010년 한 해 동안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참가 등 남북 의료진간의 교류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9년 3월 남포산원 외래병동 신축현장, 남쪽 기술자가 북쪽 기술자에게 창호 설치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2009년 8월,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임상검사실을 방문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2009년 10월, 정성의약품종합센터 품질관리실 분석기기 수리 및 사용법 교육모습

취약계층지원사업

“북한 어린이를 향한 나눔,
아이들의 몸도 마음도 균형을 찾습니다”

“돈 벌면 키크는 수술을 하고 싶어요”

한 새터민 청소년의 바람입니다. 새터민 청소년에게 고스란이 배여 있는 아픔의 기록은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의 만성 영양부족은 다가올 내일, 아이가 자라 반복되는 바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01년부터 북한 취약지역(중국접경지역) 어린이들에게 급식 및 기초 생필품을 꾸준히 지원해 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 사업을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균형과 나아가 마음의 균형까지 맞추는 지원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함북, 온성군 온성읍 종축장유치원의 운동회 모습. 2009년 9월



2009년 4월, 남측의 지원물자를 싣고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넘고 있는 트럭. 다리 건너편이 북한의 남양

2009년도 사업 내용

2001년 7월부터 시작한 취약계층지원사업은 2009년의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은 신뢰를 놓고 신뢰는 어떠한 장벽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2004년 4월부터 계속된 평안북도 신의주 및 룡천지역 고아원, 장애인 시설 6곳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6월부터 지원한 함경북도 온성군 2곳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2009년 4월에는 총 5곳 유치원으로 확대, 현재까지 매일 국수, 콩기름, 내의 등 급식 물품과 기초생필품을 중국의 도문에서 북한의 온성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취약계층지원사업은 11개 시설 3,827명의 어린이들에게 총 14차례 1억1천4백만원 상당의 국수, 설탕, 콩기름, 내의, 솜등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시설 및 수혜자

지역	시설명	나이	수혜자수	비고
평안북도	룡천육아원	1~4세	420명	고아원
	신의주육아원	1~4세	220명	고아원
	신의주애육원	5~7세	130명	고아원
	동림중등학교	7~16세	470명	고아원
	삭주군이부모학원	7~16세	123명	부모 양육 힘든 아동
	염주군양생원		120명	부양자 없는 장애인
함경북도	온성읍유치원	5~7세	712명	
	남양로동자구유치원	5~7세	396명	
	왕재산리유치원	5~7세	398명	
	농장유치원	5~7세	586명	
	종축장유치원	5~7세	252명	

향후 계획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동안 진행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는 함경북도 온성군에 있는 전체 유치원 및 고아원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함경북도 온성군 인민위원회 해외동포영점처와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온성군 지역 전체에 있는 105개 유치원과 1개 고아원 6,562명의 어린이들에게 매일 영양 빵 1개와 양말, 장갑, 학용품 등 기초생필품으로 구성된 선물상자, 겨울 의류, 신발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 캠페인이 안정화되면 같은 사업을 함경북도 회령시와 셋별군 등으로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2009년 4월, 온성읍 농장유치원 아이들에게 물자를 전달하는 모습



남이든 북이든 "아이들은 놀기 위해 태어난다" 2009년 9월, 농장유치원 아이들 모습

긴급구호지원사업

“남녘의 희망담은 옥수수,
 북녘에 큰 힘이 됩니다”

2009년 남북관계 악화로 우리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함께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워졌습니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2009년 초 북한 북동지역의 식량배급이 200g 밑으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고, 세계식량기구(WFP)도 외부 지원이 없을 경우, 북한의 전체 식량 부족분이 전체 필요량의 1/5에 해당하는 11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WFP와 FAO가 2008년 북한의 53개군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 60%가 하루 두 끼 이하의 식사를 하고, 주민 1인/1일 배급량도 150g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여름 북한 전역에서 발생했던 가뭄 피해로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의도순복음교회와 함께 대북긴급식량지원을 위한 옥수수 1만톤(318만달러, 약 38억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 굿네이버스와 함께는 옥수수 1천톤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대북긴급식량지원을 위한 옥수수 1만톤은 2009년 8월 18일 부터 2009년 11월 25일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옥수수 1천톤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17회에 걸쳐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대북 긴급 식량(옥수수)지원 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지원의 성격보다는 인도주의적 긴급구호 성격의 사업으로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있는 북한 주민들, 특히 산모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향후에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긴급 식량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경과

기간	내용
09.7.14	옥수수 구매 계약 체결(8,500톤, 1차)
09.8.28-8.30	제1차 현지 모니터링 방문(2명, 중국 대련)
09.8.31	제1차 긴급식량 지원 옥수수 4,200톤 지원 (25kg, 168,000포 / 중국 대련항-북한 남포항)
09.9.14	옥수수 구매 계약 체결(1,500톤, 2차)
09.10.20-10.22	제2차 현지 모니터링 방문(11명, 중국 단둥)
09.10.22-11.25	제2차 긴급식량 지원 옥수수 5,800톤 지원(40kg, 145,000포, 27회 / 중국 단둥-신의주-평양 서포역)
09.11.27-12.3	제3차 긴급식량 지원 옥수수 1,000톤 지원(40kg, 25,000포, 17회 / 중국 단둥-신의주-평양 서포역)



중국 대련 옥수수 포장 모습



중국 단둥에서 열차 적재를 기다리는 옥수수

IT교육협력사업

“북한 전문인력 교육의
 모범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측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대상으로 IT전문교육을 실시, 전문가(연구원,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 2006년 5월부터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인력은 북한으로 돌아가 각 대학의 교육과정에 최신 이론 및 기술을 적용하며, 교육 받은 내용을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IT 분야는 남북 공동의 이해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란 점에서 서로 협력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매년 중국 단둥에 북한의 교육생을 초청, IT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5개 기수가 배출되었으며, 임베디드는 PMP, MP3의 재생 및 게임 개발에 대한 내용이며, 자바(JAVA)는 홈페이지 구축, 3D 과정은 애니메이션 및 영화 특수효과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 내용

2009년도에는 국제 자격증 과정으로 시스코 네트워크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북측과 협의하고 상반기에 이미 제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국제적으로 인종된 자격증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교육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대내외적인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9년 4월 정부의 사업 유보 통보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계획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은 남북간 교수진, 개발자, 학생들간의 인적 교류, 북측에 기술 전수, 경험 활성화 등 많은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비록 2009년 한 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는 국제통상과 무역, 외국어 등 교육 내용을 더욱 다양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출신학교별 배출 인력현황

출신학교별	1기 2006/9~ 2006/12	2기 2007/4~ 2007/9	3기 2007/10~ 2007/12	4기 2008/6~ 2008/8	5기 2008/9~ 2008/12	계
김일성종합대학	7		12	3	8	30
김책공업종합대학	11	2	7	15	13	48
리과대학	3		7	9	4	23
컴퓨터기술대	9		3		5	17
평양기계대학				1		1
회천공업대학				1		1
평양정보센터						0
KCC						0
평양미술대학		17				17
평양연극영화대학		5				5
평양김형직사범대학		2				2
한덕수경공업대학		1				1
김철주사범대학		1				1
평양인쇄공업대학		1				1
평양상흥대학		1				1
민경련	2	1	1	1		5
삼천리						0
계	32	31	30	30	30	153

정책연구사업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모색합니다”

국제연대 사업

다양한 대북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각 정부간 지원기관, 국제INGOs 및 남쪽의 대북지원단체들은 좀 더 효율적인 대북지원을 위한 경험과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여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는 11월 24일~26일에 독일 에버트재단, 경기도 및 통일연구원과 함께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공동주최하였습니다. 24일 공개회의에서는 현재의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각 기구별 지원활동을 논의하였고 150여명이 넘는 많은 시민들과 여러 언론들의 참석을 통해 대북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25일~26일 비공개회의에서는 실질적인 대북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대북지원 발전을 위한 과제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국제회의의 프로그램

구분	일정	주제
공개회의	11.24	북한의 인도적 상황 및 각 기구별 지원 활동
비공개회의	11.25	세션1 : 대북지원 활동의 평가: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
		세션2 : 개발원조 정책과 북한에 대한 함의: 양자원조 기구의 시각
		세션3 : 북한개발원조를 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
비공개회의	11.26	종합토론: 대북지원의 새로운 전략모색



정책포럼 및 토론회

남북관계와 대북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이슈에 대한 공론형성과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정책포럼, 토론회 및 라운드테이블을 7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시의 적절한 주제와 함께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견해를 경청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남북관계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남북 당국간의 관계 경색으로 대북지원이 많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민간협력을 통한 대북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대북인도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통일논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사회 통일론 정립을 위한 논의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사업

2008년도에 이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으로 '북한 개발원조를 위한 국내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책자가 2010년 1월 통일연구원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또한 통일부 연구용역인 지방자치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을 총정리한 '지방자치단

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연구에 참여, 그 책자가 지난 12월 통일부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연대활동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30여개 평화단체의 약 60여명이 참여한 평화활동가 워크숍이 '평화운동, 통(通)하였느냐, 통(通)하였느냐 : 국가폭력과 비폭력'이라는 주제로 11월 5일부터 11월 7일 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는 준비위원단체로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지속적인 대북지원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꾸준히 정책포럼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북개발지원을 위한 남쪽의 역량강화를 위해 '대북개발지원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9년에 이어 대북인도적·개발지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간담회와 회의를 꾸준히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책포럼 및 토론회 현황

구분	일정	주제
제38회 정책포럼	1. 15	2009년 북한 주민의 쌀독 상황: 식량 부족의 현상과 본질
제39회 정책포럼	4. 27	북한 로켓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심층 대해부
제40회 정책포럼	9. 4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현황과 향후전망
제41회 정책포럼	10. 8	남북 간 인도주의 현안과 민간협력
제20차 정책토론회	1. 5	2009년 북한공동신년사설의 분석과 정세전망
제5차 라운드테이블	9. 11	기존 통일담론의 평가와 시민사회 통일론의 모색
제6차 라운드테이블	11. 7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철학적 성찰



2009년 11월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회의



2009년 9월,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정책포럼



2009년 1월,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분석한 정책토론회

재외동포지원사업

“볼고그라드 고려인동포,
꿈과 희망의 길 위에서 만나다”

1937년 스탈린 강제이주 이후 강력한 소비에트 정권 아래 고려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언어, 문화, 경제, 생활방식 등 모든 면에서 소비에트 양식에 동화되었습니다. 고려인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은 배제되었고, 이들의 민족, 문화적 정체성은 열어져만 갔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문화, 민족적 정체성 상실과 우리네 역사에서 소외되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설농업지원과 고려인 연수 프로그램

볼고그라드 재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들에게 현대화된 비닐하우스 시설영농기술을 전수하여 수익 증대 및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농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50m짜리 비닐하우스 10동 분량(약 1억원 상당)을 지원, 러시아 볼고그라드주 솔로두쉬노와 레닌스키 2곳에 시설영농단지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또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을 볼고그라드 현지에 파견, 고려인들에게 우리의 발전된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10명의 고려인들을 한국에 초청, 시설농업 이론 교육 및 농장현장 실습 등 다양한 농업 기술을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볼고그라드 레닌스키에 있는 제2시설 영농단지

한글·문화교실

잊혀져가는 민족정체성과 민족문화를 알리기 위해 한글문화교실을 볼고그라드와 볼스키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볼고그라드 한글문화교실은 2009년 상반기에는 주 3일 수업으로 한국어 초급, 중급과정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하반기에는 한·러청년 문화교류프로그램 이후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증대로 인해 주 6일간 초급과정 중심으로 평균 2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볼스키 교실은 매주 토요일 볼스키 도서관에서 평균 1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급과정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문화 사업

모국과의 다양한 교류활동 및 동포 청년들의 꿈과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인 학생 1명을 우리 정부 장학생으로 선정, 국내에서 대학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러시아 현지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부산대 학생들이 볼고그라드를 방문, 현지의 고려인 및 현지인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글과 음악, 미술, 태권도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볼고그라드 현지에는 현지 청년모임인 <미리내>와 풍물패 <천둥>이 결성되어 각종 문화행사 참가와 청년문화사업, 한국어 및 한국문화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치축제

제8회 볼고그라드 김치축제 개최

2009년 8월 15일 볼고그라드 데까 가가리나(문화회관)에서 문화행사 및 타민족 공연, 한국문화전시 및 김치 담그기 시연, 고려김치 맛 경연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한국방문단 5명, 볼고그라드 주정부 및 타민족 대표, 고려인 등 약 700여명이 참가한 제8회 김치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8회 축제를 거듭하면서 지역사회 내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소수민족축제로 인정받고 있



볼고그라드 한글 교실



사할린 김치축제에서 우리 김치 맛을 보고 있는 러시아인과 사할린 동포들



러시아 볼고그라드를 방문한 부산대학교 해외봉사단

며, 볼고그라드 주정부시가 지향하는 문화도시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와 함께한 김치축제 개최

2009년 9월 2일 유즈노사할린스크 로지나(문화회관)에서 문화행사 및 김치 전시, 김치 담그기 시연, 시식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김치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사할린 동포 100여명, 한국, 일본, 연해주 대표단 등이 참가한 이번 축제는 사할린 지역의 한인동포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볼고그라드 고려인들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는데 현지의 반응이 좋아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생활·의료지원

생활·의료 지원은 연중 상시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동절기간에는 독거노인층과 동절기를 활용해 대도시로 돈벌이를 나간 가정(조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방문과 사무실에 걸려온 전화, 주변 체보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의료지원은 의약품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생활지원의 경우 부식품 및 생필품, 수유용품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

2010년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시설농업지원사업을 통해 현지 자립을 도모하며, 한글문화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모국과의 다양한 교류 및 고려인 사회 간의 활발한 문화교류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0년 국치 100년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고 잊혀져가는 고려인 동포사회의 역사를 재조명하며, 재외동포 권익증진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을 개발하고, 재외동포와 관련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재외동포 사회의 연대와 교류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및 연대사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광주전남지부사업

“북녘어린이 교육지원,
남녘 친구들이 함께 합니다”

북녘어린이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헌 교과서 수집운동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5년부터 5년째 광주전남지역 학교와 학생들의 참여 속에서 헌 교과서 재활용을 통한 북녘어린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헌 교과서를 수집하고 이를 제지공장에 재활용자원으로 매각,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광주지역 300여 초·중·고교(연인원 300,000명)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광주를 중심으로 진행하던 헌 교과서 수집운동을 전남지역까지 확대하여 310여개 학교가 동참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총 960톤의 헌 교과서를 수집하였습니다. 더불어 남쪽 청소년들이 북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직접 실천에 나설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실천적 통일운동의 모델로 정착되었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영유아 지원사업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9년부터 서울 본부와 공동사업으로 북한 변경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 교과서 수집운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기반으로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400만원 상당의 급식·생활물자를 함경북도 온성군의 영유아들에게 지원해 왔습니다(총 11회/ 4,400만원). 재정 자립이 어려운 지역단체로서 매월 400만원을 꾸준히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북녘어린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했던 지역민들과 실무진들의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제7회 광주지역 대학생 DMZ 통일기행

광주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민족분단의 아픈 현장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통일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민족공동번영에 대해 소통하는 장을 열어주는 통일교육사업으로 DMZ 통일기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위탁사업으로 2009년 7회째를 맞은 DMZ 통일기행에는 광주지역 대학생 6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강화도-파주-연천-철원을 거치는 2박3일의 일정으로 평화운동가 이시우님이 동행한 기행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대학생 DMZ 통일기행을 어린이 통일교육사업으로 확대하여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에 대한 DMZ 통일역사기행을 세 차례(1회-35명/총 105명)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지역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토론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광주지역 새터민들의 지역정착 및 적응현황 파악과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광주지역의 유관 단체들과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및 지원방안모색을 위한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4일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주최·주관하고 국가인권위원회광주사무소와 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가 공동주최로 참여하였습니다.



광주지역 초등학교 헌 교과서 수집 모습



2009년 7월, 광주지역 대학생 통일연수 DMZ 평화통일역사기행



광주지역 북한 이탈주민 정착 실태 및 지원을 위한 합동토론회

부산경남지부사업

“저탄소 녹색운동으로
지구를 지켜요!!”

평양우리민족햇빛발전소 건립 추진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9년 2월 중국 심양에서 북측 민화협과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햇빛발전소 건립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정여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7명의 대표단이 평양 낙랑구역의 발전소 부지를 답사하였으며 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09년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 사업이 협의 단계에서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던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고 35억이라는 소요 자금 전부를 모금하는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특히 2009년 6월 18일에는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대규모 후원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11월에는 3억원 상당의 100키로와트 태양광 전지판을 기증받기도 하였습니다.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0년 1차 햇빛발전소 건립을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이후에는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햇빛발전소를 북측 여러 지역에 건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 어린이 지원사업

부산경남우리민족은 함경북도 회령지역 어린이들에게 5월까지 매달 3천달러 규모의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주)예씨의 부산 신창동 지점에서 북녘 어린이들을 위해 후원해 주신 이동용 장갑, 목도리 등 약 2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회령 지역에 지원했습니다. 북한 어린이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꾸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부산경남우리민족은 지역민들에 대한 꾸준한 홍보를 통해 후원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운동 학교사업단〉 - 사회적 일자리 수익을 통한 북한 어린이 지원

매년 학기마다 버려지는 헌 교과서를 수집, 폐지를 재활용하여 나오는 수익금으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운동 학교사업단을 출범하였습니다.

노동부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의 고용지원금을 종자돈으로 하여 시작된 이 사업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수익의 10%를 북녘 어린이 지원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고용지원센터의 지원 종료 후에는 자체 모금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009년에는 부산시 교육청이 함께 동참해 주셨고, 2010년에는 경남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9년 6월,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후원회 개최



2009년 8월, 북측 민화협과 햇빛발전소 건립에 대한 합의서 체결



부산 지역 초등학교 헌 교과서 수집 모습

미국달라스본부

“ 굿주리는 북한동포를 위해 꾸준한 관심을 바랍니다 ”

달라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Korean American Sharing Movement-Dallas)은 1997년 11월 굿주리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해 창립하였습니다. 달라스 한인 사회의 종교계(개신교, 천주교, 불교)와 기업인 등 약60여명의 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달라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1998년부터 매년 3만 달러에 상당하는 물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2009년까지 그 누적액은 35만 달러에 이릅니다. 우리가 주로 지원하는 물품은 옥수수 등의 식량과 비료, 농업용 비닐 등 농자재, 의류, 의료기구, 지붕자재, 다양한 생필품 등입니다. 달라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쪽 협상 상대는 해외동포원호위원회로, 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매년 1~2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지원물자의 분배 확인과 미국 교포사회와의 협력을 협의해 왔습니다.

달라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000년 이후 미국 한인사회의 대북지원운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모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달라스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대북지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09년 11월에도 옥수수 60톤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물자의 분배확인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달라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0년 사업으로 강원도 원산에 어린이 학용품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라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조직체계

- 상임대표 윤유중 목사
- 총무 임신영 목사
- 상임교문 박영남 장로
- 협동총무 조인제 장로(의사)



북측 해외동포원호위원회에 옥수수 60톤을 기증한 증서



기증한 옥수수를 분배 현장에서 옮기는 미국 달라스 본부의 윤유중 대표



창광유치원 모습

미국워싱턴본부

카슴(KASM:Korean American Sharing Movement, Inc.)은 미국 연방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워싱턴 지역의 교포 사회 지도자 및 전문직 종사자들에 의하여 199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KASM의 주요 사업은 국제 구호활동과 청소년 교육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국제 원조 기구(USAID)의 북한 식량 원조 사업에 참여했으며, 미국의 저명한 국제 단체들의 연합인 인터액션(InterAction)의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3년 이래로 매년 여름 총 200명 이상의 우수한 한국의 대학생 및 재중동포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2-3주간의 워싱턴 리더쉽 프로그램(WLP:Washington Leadership Program)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Washington Leadership Program의 목적

세계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워싱턴내 주요 국제기구와 정부 및 비영리 기관을 방문하고, 각계각층 지도자들의 특강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국제적 안목을 기르며, 지구촌의 한 구성인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역량을 계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Washington Leadership Program의 내용

주요기관 방문

아래와 같은 워싱턴 지역의 주요 국제, 정부 및 비영리기관 등을 방문, 미국 및 국제 정치, 경제 실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미 국회의사당(Capitol), 미 연방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한미경제연구소(Korean Economic Institute), 국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맨스필드 재단(Mansfield Foundation), MercyCorps, 국립공문서관(National Archives),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펜타곤(Pentagon), 세계은행(World Bank), 월드비전(World Vision)

연사시리즈

각계 각층 지도자들의 특강에 참여하여 최근의 주요한 국제적 이슈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참가자들 간의 질의와 토론을 통해 비판적인 안목을 기를 뿐 아니라, 주요기관의 KASM멤버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실제로 일하는 모습들을 알아나갑니다.

특별 프로그램

워싱턴 내 빈민 구호 단체를 방문,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사회의식을 함양하고, 미래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개발하며, 주말을 이용한 다양한 삶의 체험을 통해 미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합니다(실제 교육내용 및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경이 가능).

빈민구호단체 봉사(Martha's Table), 견학(Field Trip: Mount Vernon), 진로조언 (KASM Hours Informal evening talks with KASM members), 세종 소사이어티 멤버들과의 간담회, 워싱턴 디씨내의 기념관 방문, 스미소니언박물관 방문, 조지타운 대학/항구 방문, 주말 피크닉



2009 사업결산

함께하는 사람들

수입

(단위 : 원)

항목	금액
전기이월	349,632,834
모금	8,796,217,741
농업축산협력사업	3,079,205,194
보건의료협력사업	82,801,232
취약계층지원사업	120,826,830
긴급구호지원사업(옥수수)	4,196,806,000
재외동포지원사업	170,349,360
IT교육협력사업	74,196,664
기타지원사업	712,407,104
일반모금	59,625,357
기부물품(현물)	300,000,000
운영비	494,381,040
회원회비	190,694,869
후원금	303,686,171
기타수입	567,968
합계	9,640,799,538

지출

(단위 : 원)

항목	금액
사업비	8,900,923,592
농업축산협력사업비	3,091,837,591
보건의료협력사업비	91,797,795
취약계층지원사업비	132,952,507
긴급구호지원사업비(옥수수)	4,170,598,780
재외동포지원사업비	257,480,702
IT교육협력사업비	74,337,133
기타지원사업비	710,410,164
간접사업비(정책연구사업비 등)	71,508,920
기부물품(현물)	300,000,000
운영비	460,025,274
기타지출	55,698,799
차기이월	224,151,873
합계	9,640,799,538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고문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김성훈 (前 상지대학교 총장/환경정의이사장)
 박경조 (대한성공회 대주교/나눔과평화재단 이사장)
 서영훈 (前 대한적십자사 총재)

상임공동대표

영 담 (불교방송 이사장)
 윤여두 (동양물산기업(주) 부회장)
 이일영 (R.I. KOREA 의장)
 인명진 (갈리리교회 담임목사)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공동대표

고희선 ((주)농우바이오 회장)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현수 (대한한회사협회 회장)

박남수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박원철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준영 (을지대학교 총장)
 윤장현 (광주전남지부 이사장)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용선 (前 운영위원장/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정 여 (부산경남본부 상임대표/범어사 주지)
 정의화 (국회의원)
 천정배 (국회의원)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원장)

감사

김영환 (공인회계사/양지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전 성 (변호사/법률사무소 창신 대표)

평화나눔센터 소장 이종무

법률지원센터 '우리동포' 소장 전성 (변호사)

사무총장 강영식

사무국

홍상영 국장
 서명희 부장
 이예정 부장
 손종도 부장
 이복철 부장
 황재성 부장
 현지연 간사
 오형윤 간사
 윤남희 간사
 정유정 간사

광주전남지부

이사장

윤장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사무처

김영삼 사무처장
 이재봉 사업국장
 박효정 간사

부산경남지부

상임대표

정 여 (부산 범어사 주지)

사무국

차상조 (로덴치과 원장)
 주병호 (주식회사 강산 회장)

공동대표

원형은 (빛과 소금 교회 목사)
 구자상 (부산환경운동연합 상근대표)
 조기중 (조기중치과 원장)

문화예술위원장 최정완
 상공위원회위원장 하종곤 (예서건설 대표이사)
 상임이사 리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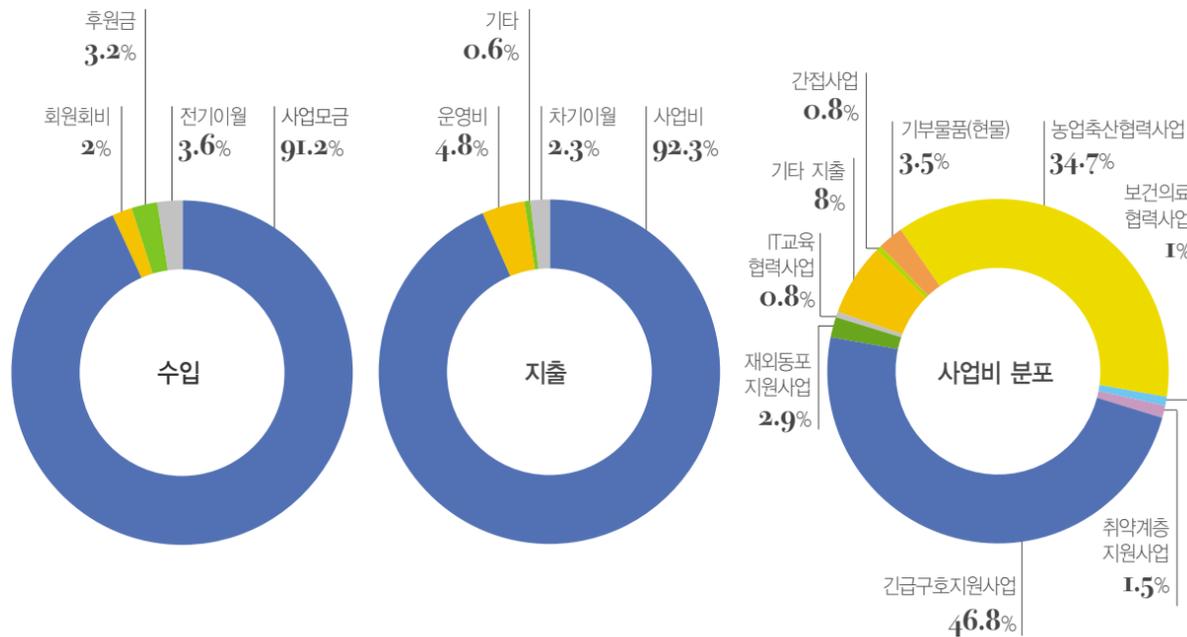
러시아 볼고그라드지부

볼고그라드 사무소

김뽀뜨르 부회장
 박엘레나 총무
 류슬라브 감사

시설농업현장사무소

김아파나시, 김알렉세이 (솔로두시노지역 담당)
 김싸샤, 이 아나톨리 (레닌스키지역 담당)



2010년, 희망을 계획하세요!

2010년 나의 계획

1. 담배끊기
2. 술끊이기
- ~~3. 작은나눔 실천하기~~
4. 영어는 싫어도 공부하기
5. 재테크하기
6. 자전거타고 출근하기
7. 짜증보다 웃어보이기
8. '지름신' 과 이별하기